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⑧ 전남 구례 화엄사 홍매화

장엄한 붉은빛이 던지는 각성의 메시지

전남 구례 화엄사 홈페이지에 "'화엄, 천년의 공간 향기에 취하다' 제2회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 개회식이 봉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떴다. 사진으로만 봐도 고혹적인 색감에 무아가 되는 순간을 직면하고 싶어 길을 나섰다.

이른 새벽 행신에서 출발하는 첫 기차를 타고 구례구역에 내려 버스로 또 버스로 이동해 화엄사 입구에 내렸다.

데크길을 천천히 걸어가는데, 2차선 도로를 감싸고 있는 일주문인 듯 아닌 듯한 '지리산 대화엄사' 현판이 나온다. 곧바로 갈 길이 아직 남았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골이 깊은 지리산의 웅장한 계곡물 소리와 하늘 높이 솟은 나무들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산속 봄에 취해가고 순간 최종의 알현 대상인 홍매화가 흐릿하게 잊힌다.

그때 '화엄사 각황전과 중소 이야기' 안내판이 눈에 잡힌다. 노파는 송구한 표정으로 살아나기 힘든 깊은 물에 뛰어들고, 이를 본 화주승 계파선사는 화들짝 당황스러워하는데, 그 옆에 적힌 전설이 발길을 재촉한다. 시주할 그 무엇이 없어 "이 몸이 죽어 다시 태어나서라도 불사를 하리라"면서 찰나의 생을 마감한 뒤, 숙종의 공주로 태어나 장육전을 중건할 수 있었고, 임금을 깨우치게 했기에 각황(覺皇)이라는 편액까지 받게 되었다는 그 현장을 빨리 보고 싶어서다.

걷는 자보다 쌩쌩 차량 행렬이 즐비한 길을 조금 더 걸으니 다리를 건너게 되고, 바로 거기가 화엄사 시작이다. 평일인데도 주차장에서 쏟아지는 사람들이 여느 일주문과 달리 담장으로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문까지 갖추어진 불이문의 공간을 오고간다.

권중서 포교사에 의하면, 화엄사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승군 주둔 사찰이 되었기에, 문을 두어 관리들의 수탈과 외적의 침입을 막을 때는 닫고, 중생의 아픈 마음을 달랠 때는 활짝 열어 놓았다고 한다. 이는 벽암 각성 스님의 지범개차 정신의 반영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알고 나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화엄사는 백제 성왕 22년(544)에 인도 스님이신 연기조사께서 창건했고, 신라 말기 헌강왕(875) 때 도선국사가 동오층석탑과 서오층석탑 조성과 더불어 화엄사 중흥조가 되시면서 화엄사가 대종림으로 승격되었다.

조선 세종 6년(1426)에 선종대본산으로 승격된 화엄사는 임진왜란 때 모든 전각이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고, 인조와 숙종 시기에 중건을 거쳐 지금의 도량으로 거듭나 넉넉한 지리산처럼 힘들고 지친 많은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다.



전남 구례 화엄사 홍매화

전남대 건축학과 천득염 교수에 의하면 "대부분의 평지 사찰들은 기하학적으로 정형화된 장방형의 대지를 조성하고 축선이 있으며 축선 상에 주요 건물들을 하나하나 배치하는데, 화엄사는 산지 사찰이기 때문에 지형에 순응하다 보니까 축대를 만들고 축대에 대지를 두고 대지 위에 건물을 두게 됨으로써 적절하게 약간 지그재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란다. 그래서 홍매화와 마주하려면 경사진 길을 걸어야 한다.

일주문을 통과해 '불견, 불문, 불언' 동자승을 지나 금강문, 천왕문을 거쳐 보제루 옆을 걸어야 경내에 들어서는데, 주불전인 각황전과 대웅전을 만나기까지 계속 올라야 한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홍매화에 취하려면 각황전 앞 가파른 계단을 또 올라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석등을 스치듯 지나야 한다.

드디어 각황전 추녀와 원통전 사이에서 계파선사가 심었다는 고령의 홍매화를 바라본다. 검붉은 피처럼 뜨거운 에너지를 내뿜는 꽃잎을 보니 숨이 턱턱 막힌다.

뒤로 물러서서 5m 정도 되는 것 같은 전체 모습을 보니 4.8m의 장육전 부처님이 각성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우아하게 피어 있는 듯해 숙연해진다.

국가표준식물목록에 홍매화를 치면 검색이 안 된다. 매화가 지고 나서 맺는 열매인 매실을 치면 23가지의 매실나무가 나오는데, 홍매화를 가리키는 매실나무는 '매실나무 베니 치도리' (Prunus mume Beni-Chidori)'이다. 베니 치도리(紅 千鳥)는 일본말로 '붉은 천 마리의 새' 정도가 되는데, 기본이 되는 매실나무 학명은 프루누스 무메(Prunus mume)이다. 프루누스는 자두를 뜻하는 라틴어이고, 무메는 매실의 일본 이름인 우메(梅)이다.

이렇게 되면 매화가 일본이 원산지 같은데, 중국 사천성이 원산지이고, 최초 기록은 시경에 나온다. 우리나라도 삼국사기에 매화가 등장하고, 홍매는 고려 사람 이승휴의 상유내상시(上兪內相詩)에 "박복한 여인 하루가 일 년 같은데/홍매 모두 졌건만 그 사람 소식 없네(薄命閨中日似年/紅梅落盡沒人傳)"라는 시가 전해진다.

나는 아니 우리는 왜 장엄한 붉은빛에 매료되는 걸까? 〈빨강의 문화사〉를 보면, "빨강은 야누스의 얼굴을 한 색이며, 빨강이 에너지가 풍부한 까닭은 검정과 하양 모두와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일까? 단청 없는 각황전의 자연미에 동 트는 새벽이든 한낮의 따사로운 햇빛이든 빨간 석양이 질 무렵이든 화엄사 홍매화의 붉음은 더 빛나는 것 같고, 모순의 삶에서 바르게 깨어나라는 각성의 강렬한 광선 같다. 그래서 봄이 되면 생각나는 걸까?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⑧ 정호승의 〈마음 없는 내 마음〉

길 너머 마음 너머 꿈꾸기

마음 없는 내 마음 / 정호승

마음속에 마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내 마음 어디로 갔나
마음 없는 내 마음에 비가 오네
봄비가 오네
오늘도 마음은 봄비를 맞으며
내가 찾아가기도 전에
또 나를 찾아왔구나
오늘도 마음은 봄비 속으로
내가 떠나가기도 전에
또 나를 떠나갔구나
단 한 번 사랑함으로써 평생을 사랑하는
경주 정혜사지 천년 석탑처럼
마음 없는 내 마음
비를 맞고 서 있네

(정호승 시집, 〈당신을 찾아서〉, 창비, 2020)

정호승 시인은 '자각'(自覺)의 시인이다. 웬만한 '각자(覺者)'보다 도(道)가 더 높다. 인간미와 친근감도 넘친다. 그것은 정호승 시인의 도가 특별한 도가 아니라 '보통사람'의 도이기 때문이다. 사실, 시에서 '도(깨달음)'는 ('설명'과 함께)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도는 결국 설교로 이어지고, 설교는 결국 가르침으로 이어지며, 가르침은 결국 강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로 잘난 이 사바에서 '설교'당하고 살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산다. 그러나 이것이 꼭 지탄할 일만은 아니다. 그런 착각-자각이라도 없다면 무슨 재미-동력으로 이 지난한 삶을 살아 내겠는가.)

문제는 내로라하는 많은 시인들이 그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다 깨달은 양, 시를 통해 (남을, 독자들을) 가르치려 들고 있다. 그 순간, 시는 시로서의(문학으로서의, 예술로서의) 모든 의미와 지위를 상실하고 만다. 선승들의 '오도송(悟道頌)'만 봐도 알 수 있다. 높은 선승(禪僧)일수록 깨달음을 그냥 깨달음으로 단순히 노래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도의 비유와 인식(해석)으로 그것을 사물(동식물, 자연) 속에 내장(內藏)한다. 훌륭한 선시일수록 높은 문학성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호승 시인의 시편들은 대개 그 선상에 있다. 많은 독자들이 정호승 시인의 시를 애송하는 것도 그런 연유다. 예술적으로 재탄생한 그의 자각들은 설교가 아니라 공감이고, 깨달음이 아니라 발견이고, 관념이 아니라 현실인 것이다.

정호승 시인의 '자각'이 사랑 받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그것이 정제된 사랑과 비극으로서의, 외로움과 눈물로서의 삶을 실존 그대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늘한 삶의 인식과 분석 속에도 인간적 따스함이 있고, 시적 자아의 반동적 발화(發話) 속에도 사람들의 추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단정하고 정제된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호승 시인 하면 선암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반대로 선암사 하면 정호승 시인이 먼저 떠오르는 까닭은 또 무슨 이유일까. 바로 그의 〈선암사〉 때문이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 선암사 해우소에 가서 실컷 울어라/ 해우소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으면/ 죽은 소나무 뿌리가 기어 다니고/ 목어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닌다/ 풀잎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고/ 새들이 가슴 속으로 날아와 종소리를 울린다/ 눈물이 나면 걸어서라도 선암사로 가라/ 선암사 해우소 앞/ 등굽은 소나무에 기대어 통곡하라"

1999년 창작과비평사에서 펴낸 정호승 시인의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라〉는 시집에 수록된 시다.

2000년대 초, 이 시를 읽고 나는 진짜로 새마을호 기차를 타고 선암사에 갔다.(당시만 해도 새마을호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기차였다)

당시 무엇이 필자를 그렇게 이끌었는지는 모르겠다. IMF 뒤끝으로 인한 삶의 고단함과 무거움 때문이었던 것도 같고, 괴롭고 슬픈 일이 많아서인 것도 같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아서인 것도 같고,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인 것도 같고, 도덕적 죄책감에 시달려서인 것도 같고, 앞길이 막막하고 희망이 없어서인 것도 같고, 갈 길을 잃어서인 것도 같다.

그렇게 선암사에 도착한 필자는 실제로 해우소에 들어가 쭈그리고 앉아도 보고, 쭈그리고 앉아서 판자 틈새로 등 굽은 소나무를 찾아보기도 하고, 손수건을 꺼내 코를 풀어보기도 했다.(그 인연으로 훗날 나는 정말 선암사 사람이 됐다. 선암사 문중으로 출가했다는 뜻이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정호승 시인이 〈선암사〉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을 알 것 같다. 정호승 시인은 그 질곡의 시대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걸어서라도 선암사 뒤깐에 가서 '온갖 근심을 풀고[解憂]' 오라고, 그러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일러준 것이다.

정호승 시인의 '마음 없는 내 마음'을 만난 지는 얼마 안 된다. 그러나 만난 그 순간 나는 바로 정혜사지 천년 석탑이 되었다. 그것은 '단 한 번 사랑함으로써 평생을 사랑하는' 부처님의 사랑법(마음법)이었던 것이다.

오늘 나는 다시 봄비 속에 섰다. 그리하여 길 너머 마음 너머를 꿈꾸고 있다. 그 꿈을 위해, 평생의 사랑을 위해 부석사를 그리며.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오죽하면 비로자나불이 손가락에 매달려 앉아 있겠느냐/ 기다리다가 죽어버려라/ 오죽하면 아미타불이 모가지를 베어서 베개로 삼겠느냐/ 새벽이 지나도록/ 마지(摩旨)를 올리는 쇠종 소리는 울리지 않는데/ 나는 부석사 당간지주 앞에 평생을 앉아/ 그대에게 밥 한 그릇 올리지 못하고/ 눈물 속에 절 하나 지었다 부수네/ 하늘 나는 돌 위에 절 하나 짓네" -(정호승의 '그리운 부석사' 전문)

그래, 사랑은 연습이 아니다. 불교는 연습이 아니다. 실천이고 실제다. 그 실천을 위해, 실제를 위해 오늘도 나는 길 없는 길 위에서 마음 없는 마음을 찾고 있다.

참, 정호승 시인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하지만 그의 많은 시편들이 불교에 신세지고 있다. 승려인 필자보다도 더 많이 불교를 잘 알고, 잘 훔쳐 쓰고 있다는 뜻이다. 훌륭한 시인이다.

〈불교문학연구소장〉

불기 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불기 2566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 신문사는 임인년 봉축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희망과 나눔의 등불로 가득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다시 희망과 꽃피는 일상으로 평화롭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원고마감 : 2022년 4월 25일(월)
접 수 처 : 현대불교신문 광고부
전화 02)2004-8216 팩스 02)737-0698
E-mail jabi2018@naver.com

지사지국 접수처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탈종공고

• 사찰명 : 정명사
• 주 지 : 명산 (속명 : 이병구)
• 주 소 :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 19번길 22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법하